

당서 초등학교 2-3 김규민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아침엔 맑고

제목 : 청소를 했어요. 오후엔 맑다.

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민재
를 보았다. 거실에 가 보는데
거실이 어질어질해졌다.

그래서 난 거실을 다 청소
했다. 그리고 난 아침밥을
먹고 옷입고 9시 반 미사를

갔다 거기서 할머니를
만나 같이 미사를 하였다.
미사가 끝나고 우리는 할머니

데에 갔다 그 대신 엄마랑
같이 약속을 했다. 그리고
아빠와 엄마는 집에 오자

가구들을 옮겼다. 나는 그대
동안 컴퓨터를 2시간 했다.
저녁도 먹고 싶었는데 아빠

와 엄마가 피곤하고 힘들다
해서 그냥우리집에서 먹은다
고 했다. 그다음에 우리 집에

이모가 왔다. 이모가 갈때는
숙제 다 하고 오라고 해서
신났다. 나는 행운이 많다.

이 세이
들어갈 내
칸이 부족
청부함대